

다음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

우리 해운대제일교회의 사명에 따른 다섯 번째 비전은 “다음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거목이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다음세대 자녀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키워, 온전한 믿음계승을 이루는 것이 우리교회 다섯 번째 비전입니다.

주변에서 안타까운 일은 ‘믿음 좋은 부모에게서 믿음 없는 자녀가 나오는 것’입니다. 부모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교회 안에서 중직을 받고 충성합니다. 그런데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정은 어떻습니까? 온전한 믿음계승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온전한 믿음계승, 다음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인 자녀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자녀교육의 우선적인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고 말씀합니다.

(신6:4-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선적으로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음세대를 믿음의 거목으로 키우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하는 자녀교육이어야 한다.”

예배는 교회에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는 3040세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하는 목장을 만들 것입니다.

(신6장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4-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온전한 믿음계승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부모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성경을 보면, 다윗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믿음의 보시고 후손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부모의 믿음은 당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당신의 믿음으로 인해 자녀들이 복을 받는 삶이 되십시오.
- 또한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부모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면 자녀도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부모에게 없는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기 원하십니까? 전심을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부모들이 되십시오.

7절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들을 언급합니다.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무슨 말씀입니까?) 일상생활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자녀들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자녀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며, 매일 삶의 현장에서, 부모가 말과 삶으로 말씀을 가르쳐야 합니다.

한 주간은 168시간입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는 시간은 1시간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교육만으로는 온전한 믿음계승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맡기는 것으로 신앙교육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자녀교육의 주체가 아닙니다. 자녀들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교회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녀교육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8-9절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지니라.”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우선임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입술로 가르치거나,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부모가 먼저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내 생각, 내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따라 행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게 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장차 주역이 되어 살아갈 땅, 우리나라는 물질적인 면에서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세계 11위 경제대국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는 매우 위험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한 땅입니다. 물질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학력제일주의가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포스트모더니즘으로 하나님의 유일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동성에 같은 심각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땅에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려면,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실례) 어느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원아들에게 종이를 나누어주고 엄마의 얼굴을 그리하고 했습니다. 그림들 가운데 특이한 것이 있었습니다. 엄마의 입과 손은 지나치게 큰데 귀가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그림을 그린 원아를 심리적으로 유도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엄마가 잔소리를 많이 하니까 입이 크게 보이고, 걸핏하면 손으로 때리니까 손바닥만 크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귀는 왜 없느냐고 물었더니, 아이가 말하는 것은 도무지 들어주지 않으니 귀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의 모습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럴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비친 여러분의 모습이 자녀교육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탈무드에게 보면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재산을 남기고,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지식을 남기며,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녀들에게 신앙을 남긴다.”

함께 나눔

1.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은 것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어보십시오.
2. 온전한 믿음계승이란,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계승을 위해 당신은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나누어보십시오.
3. 자녀들에 관한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십시오.